**[현대위아]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생산/품질 파트**

**1. 자신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무엇이며,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 노력,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뒤에서 숨었던 아이, 자신있게 변하다]

긍정적인 생각과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일도 이길 수 있다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토피가 심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고1~고2까지 하지 못 했습니다. 워낙 심하게 앓았던 병이었고 특히 사춘기 시절 얼굴과 몸 등 보이는 곳이 병을 앓다 보니 대인기피증과 같은 좋지 않은 내면의 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고, 운동도 하면서 면역력을 키워 나갔고 그 결과, 저의 노력과 주위 가족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지금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신감도 생기고, 남에게 먼저 다가가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저가 되었습니다. 아팠던 과거를 생각하며 ‘노력을 한다면, 힘든 상황도 바꿀 수 있다’ 는 신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실함은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무기이며 또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2. 타인과 함께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 등을 기술하시오.**

[최고의 무기는 입!]

세상의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건 대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3학년 '기계설계' 강의에서 미래설계 프로젝트를 조별로 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저는 조장 역할을 했었는데, 처음에 의욕이 앞서서 조원들에게 무리한 과제들을 나누어주었고, 저희는 1차 발표 때,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 했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했던 날, 조원들을 모아서, ‘너무 내 의욕만 앞서서 한 것 같고, 조장이지만, 이러 이러한 부분을 잘못을 했고, 너희들도 ~한 역할을 책임감있게 진행해달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조원들은 오히려 저를 더 격려하면서 다 같이 으쌰 으쌰 하면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역할분담과 과제를 각자 주어졌고, 저희들은 새로운 방식의 비행기-기차시스템을 설계를 했었고, 교수님의 입에서 AMAZING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물론 처음엔 잘못된 길을 갔지만, 최종 결과는 올바른 방향,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기에 저에겐 너무나 큰 경험이자 자산이었고, 무엇보다 최고의 무기는 '사람의 입, 말' 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타인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15년 여름, 나의 목표와 경쟁력을 명확히 찾다!]

10주간의 현대위아의 경험은 최고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올여름,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에 위치해 있는 현대위아 강소법인에 하계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공작기계부 생산기술팀에서 인턴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공작기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용어, 모듈, 제품군들 모두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중국이다 보니 현장이나 사무실에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중국인이어서 대화도 되질 않아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현장에서의 공정을 수시로 보고, 용어와 여러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원 부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부장님 이외에도 김종진 차장님, 본사에서 출장나오신 김형진 과장님 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공작기계의 구조와 원리, 종류, 그리고 공작기계산업의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차별화할 수 있는 저만의 경쟁력, 중국 현지에서 무사히 생활했던 적응력, 그리고 현대위아 공작기계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공작기계산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4. 입사지원을 하게 된 동기와,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술하시오.**

[내가 있어야 할 곳? 현대위아!]

위아 공작기계부 하계인턴을 통하여 생산기술팀, 품질관리팀에서 실습을 통해 생산/품질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볼스크류, 스핀들, LM 가이드 등의 필수 모듈의 이해와 조립공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최종 검품 단계를 현지직원과 같이 해봄으로써 생산팀과 품질팀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인기 있는 태핑기 i-CUT400M/T 시리즈를 알아보면서 최근의 트렌드와 공작기계산업의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V Joint 사업, 주물 사업부에 대해서도 공장 견학과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배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비록 중국 법인이었지만 현대위아를 직접 출/퇴근을 해보고 여러 직원분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현대위아의 VISION2020의 비전과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회사와 여러 직원분들을 보면서 '배움에는 끝이 없고, 노력을 안 하면 뒤쳐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의 소중한 경험이었던 현대위아 인턴, 저의 사원증, 하늘색 셔츠를 다시한번 입고, 저의 최종목표인 '15년내 주재원 파견!'을 이루고 싶습니다.